

권룡가



[해제]

"<권농가(勸農歌)>는 농사짓는 일에 관련된 것을 노래한 가사작품이다. 특히하게 한지가 아닌 신문지를 두루마리처럼 만들어서 필사했다. 신문은 일제시대에 발간된 『매일신보』로 昭和 5년 12월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1930년 이후에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상단 하단 2단으로 구성하여 4음보 율격을 잘 지키고 있는 정격가사이다. 작자는 미상이며, 현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작품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근본에 충실하고 있다. 농사가 산업화와 달리 자연의 시간을 제때 지켜야만 할 수 있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계몽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품을 읽어보면 다소 현실감이 떨어진다. 과도한 전고의 인용 때문이다. 이는 계몽의 성격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몰아가는 단점이 될 수 있다. 농사의 중요성이야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옛글을 인용하여 강조하는 것은 독자에게 식상한 내용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

권룡가

어와우리 동도드라 권룡가나 드러보소
 천심만민 허올저게 유물유축 허여시니
 준준흔 우리인심 이식위천 웃듬이라
 잠시라도 방심말고 사체럴 근로허야
 익연고락 성세홍은 괴식갈음 최급허다
 혼둔이 초판흔디 식목실 허여더니
 슈인시 나신후의 교인화식 허여시라
 세세짓든 복희시는 획야분쥬 허여시고
 뇌샤짓든 신훈시는 교민가식 허여시고
 흥포고복 당노민는 격양가렬 화답허고
 경역산 우순시는 남풍시렬 노릭허고
 구쥬치적 허우시은 전복후복 마련허고
 도우상임 은석탕은 조빌윤식 허여시고
 계민어식 쥬고왕은 무실편을 지으시고
 빈품시 칠월장은 남녀복사 예비허고
 우리나라 괴조성군 흥범구쥬 지어닉스
 정전법을 말가시고 룡용판정 허여시고
 사민금무 혼문제는 틱장속이 진진허고
 만고덕성 노중이는 불쇼찬혜 허여시고
 권왕횡도 잉부즈는 불위농시 허여시고
 성문의 번지업도 가포럴 비와잇고
 궁경남양 제갈선심 흥복흔실 허여잇고
 고계견모 방덕공은 유지이안 허여잇고
 휘셔척금 예관이는 덕룡영이 도여잇고

종두남산 도연명은 진딧수고 씨여니고
 금민스치 당티종은 속등인슈 허여잇고
 우국원통 쥬회암은 능봉시렬 운쥬시고
 죠경야독 동쇼남은 효형도 짝이엿다
 조고로 제와치덕 가식간란 아라이셔
 국가렬 다스리고 셔민을 양성허야
 춘경추확 보급허니 은후도 막중허고
 천도지리 인용허니 직업도 근실허다
 군조가 지타흔들 야인업시 어이살며
 예절이 조타흔들 의식업시 어이알며
 부귀영화 혼을마오 천허딧본 농수로다
 식토민이 도여시니 농사나 힘써보시
 몸이우모 쇼삭도는 극기승옥 밥비허고
 삼시일 우수허고 사지일 거지로다
 옥 α 박 α α 계말고 분회렬 만이모아
 시파칙곡 허올저게 실시렬 허지말고
 기경기계 힘을써서 유쥬망을 기다리되
 부인가의 아름다면 조고로 멀어시니
 닉의롱사 잘못허고 남의곡석 부러마오
 근조득지 옛마리오 조구다복 그레잇다
 다셔다두 큰성공은 우리농부 경이로다
 여지여경 강연락은 유황상제 명이로다
 나딧한 저농부는 유련황망 무슨일고
 방구레리 슈겨씨고 몽당호미 허레초고
 오육월 긴긴벧테 녹슈청음 반석위의
 돌비괴을 놉파비고 만스티평 잠만조닉
 계우그리 썩여보니 일낙셔산 도여구다
 눈을미나 밧털미나 이래허고 어이허리
 허리잇틀 흥청거레 실시허기 좀관이라
 비전박토 다목키고 일여롱스 어딧간고
 쏘헌스람 흥형허야 쥬막집의 조조당겨
 혼존두존 취헌후의 쥬치도 만컨미논
 취흥이 도도허야 화투헌번 허여보세
 혼돈두돈 혼양넉기 이리저리 노러보시
 활슈남조 네아니야 불임쇼리 더욱조타
 분벽스창 저방안의 쥬쥬야야 희락허니
 부모봉양 어딧두고 쳐조권속 모라고셔
 용전여슈 만흔지물 부운갓치 허터진다

금연츨 명연춘의 호세지세 어이홀고
경쇄갓튼 빈집안의 빅계무척 흘슈업다
흔탄흔들 어이하며 후회흔들 어이홀고
이러흔 음학유렬 뉘안이 천케아리
우락으로 스는인싱 농스밧게 쏘잇논가
농스렬 흘지라도 라티말고 근력호오
빅곡양양 풍연만니 절용절식 검쇼호오
흥연을 다하거던 제축으로 근슴마오
빈부업논 디동세렬 제씨예 봉공호오
제스나렬 당하계던 즈성정결 지계호오
점빈곡을 흘지라도 친쇼업시 후디호오
슈신제가 하논도리 이에서 더클쇼나
부녀의 진는롱스 방적으로 근로하야
잠월조상 당하거던 오묘상을 싸여니아
활슈남즈 네아니아 불임쇼리 더욱쇼타
분벽스창 저방안의 쥬쥬야야 희락하니
부모봉양 어디두고 쳐즈권속 모라고셔
용전여슈 단흔치물 부운갓치 흐터진다
금연츨 명연춘의 호세지세 어이홀고
경쇄갓튼 빈집안의 빅계무척 흘슈업다
흔탄흔들 어이하며 후회흔들 어이홀고
이러흔 음학유렬 뉘안이 천케아리
우락으로 스는인싱 농스밧게 쏘잇논가
농스렬 흘지라도 라티말고 근력호오
빅곡양양 풍연만니 절용절식 검쇼호오
흥연을 다하거던 제축으로 근슴마오
빈부업논 디동세렬 제씨예 봉공호오
제스나렬 당하계던 즈성정결 지계호오
점빈곡을 흘지라도 친쇼업시 후디호오
슈신제가 하논도리 이에서 더클쇼나
부녀의 지는롱스 방적으로 근로하야
잠월조상 당하거던 오묘상을 싸여니아
삼분구쇼 고은시델 섬섬옥슈 즈사니고
직현지황 찬찬의복 벽등하의 지어니다
일지일 이지일의 쥘세근슴 삼시호오
오호라 동도두라 불괴불흔 상셔로다
육심여년 칙상압희 세상즈미 별노업셔
권룡가 혼곡쥬의 이니심사 감흥하다

[현대역]

권농가

어와우리 동도(同徒)1 돌아 권농가(勸農歌)나 들어보소
 천생만민(天生萬民)2 하물적에 유물유측(有物有則)3 하여시니
 준준한4 우리인생(人生) 이식위천(以食爲天)5 으뜸이라
 잠시라도 방심말고 사체(事體)6를 근로(勤勞)7하여
 백년고락(百年苦樂)8 성세(盛世)9함은 기식갈음(饑食渴飲)10 최급(最急)11하다
 혼돈(混沌)12이 조판(肇判)13한대 식목실(食木實)14 하였더니
 수인씨(燧人氏)15 나신후에 교인화식(教人火食)16 하여시라
 서제(西帝)17짓던 복희씨(伏羲氏)18는 핵야분주 하여시고
 뇌사(耒耜)19짓던 신농씨(神農氏)20는 교민가색(教民稼穡)21 하여시고
 함포고복(含哺鼓腹)22 당노민(唐堯民)23는 격양가(擊壤歌)24를 화답(和答)25하고
 경역산 우순씨(虞舜氏)26는 남풍시(南風詩)27를 노래하고
 구주치적(九疇28治績29) 하우씨(夏禹氏)30는 전복후복(甸服31候服32) 마련하고
 도우상임 은성탕(殷成湯)33은 조빌34윤식 하여시고
 계민어색 주문왕35은 무일편36을 지으시고
 빈풍시(豳風詩)37 칠월장은 남녀복사 예비하고
 우리나라 기자성군(箕子聖君) 홍범구주(洪範九疇) 지어내사
 정전법(井田法)38을 말가시고39 농용팔정(農用八政)40 하여시고
 사민급무 한문제(漢文帝)41는 태장속이 진진하고
 만고대성(萬古大聖)42 노중니(魯仲尼)43는 불소찬에 하여시고
 권왕행도(權王行道)44 맹부자(孟夫子)45는 불위농시(不違農時)46 하여시고
 성문의 번지업도 가포를 배워있고
 궁경남양(躬耕南陽)47 제갈선생(諸葛先生)48 흥복한실(興復漢室)49
 고계견모 방덕공(龐德公)50은 유지이안 하여있고
 휘서척금 예관이 는 대농영이 되어있고
 종두남산(種豆南山)51 도연명(陶淵明)52은 진대사기(晉代史記) 쓰여내고
 금민사치 당태종(唐太宗)53은 속등인수 하여있고
 우국원통(憂國冤痛)54 주회암(朱晦庵)55은 능봉시를 운주시고
 주경야독(晝耕夜讀)56 동소남(董邵南)57은 효행(孝行)도 짝이없다
 자고(自古)로58 제(濟)와치덕(治德)59 가색간난(稼穡間難)60 알아있어
 국가(國家)를 다스리고 서민(庶民)을 양성(養成)하여
 춘경추확(春耕秋穫)61 보급하니 은후(恩厚)62도 막중하고
 천도지리(天道之理)63 인용하니 직업도 근실(勤實)64하다
 군자(君子)가 귀타한들65 야인(野人)66없이 어이살며
 예절(禮節)이 졸다한들 의식(儀式)67없이 어이알며
 부귀영화(富貴榮華)68 한(恨)을마오 천하대본(天下大本)69 농사(農事)로다

식토민(息土民)70이 되었으니 농사나 힘써보세
 주이우모(晝爾于茅)71 소이색도(宵爾索綯)72 극기승옥(亟其乘屋)73 바빠 하고
 삼시일 우사하고 사지일 거지로다
 옥 ∞ 박 ∞ ∞ 계말고 분회(粉灰)74를 많이모아
 시파백곡(時播百穀)75 하을적에 실시(失時)76를 하지말고
 기경기계(起耕器械)77 힘을써서 유추망을 기다리되
 부인가의 아름다면78 자고로 멀어지니
 나의농사 잘못하고 남의곡식 부러마오
 근자득지(勤者得之)79 옛말이오 자구다복(自求多福)80 그래있다
 다서다두(多黍多豆)81 큰성공은 우리농부 경이(驚異)82로다
 여지여경(如坻如京)83 강연락은 유황상제(有皇上帝)84 명(命)이로다
 나태(懶怠)85한 저농부는 유련황망(流連荒亡)86 무슨일고
 방구리87를 숙여쓰고 몽당호미88 허리차고
 오뉴월 긴긴별에 녹수청음(綠水淸陰)89반석(磐石)90위에
 돌베개를 높이베고 만사태평(萬事太平)91 잠만자네
 겨우그리 깨어보니 일락서산(日落西山)92 되었도다
 눈을매나 밭을매나 이래하고 어이하리
 하루이틀 흥청거려 실시(失時)하기 잠깐이라
 비전박토(非田薄土)93 다둑히고94 일년농사(一年農事) 어디간고
 또한사람 흥험95하여 주막(酒幕)집에 자주댕겨
 한잔두잔 취한후에 주취(酒臭)96도 많건만은
 취흥(醉興)97이 도도하여98 화투(花鬪)99한번 하여보세
 한돈두돈 한냥내기 이리저리 돌아보세
 활수남자(滑水男子)100 네아니야 불임소리101 더욱좋다
 분벽사창(粉壁紗窓)102 저방안에 주주야야(晝晝夜夜)103 희락(喜樂)104하네
 부모봉양(父母奉養)105 어디두고 처자권속(妻子眷屬)106 모르고서
 용전여수(用錢如水)107 많은재물(財物) 부운(浮雲)108같이 흩어진다
 금년추(今年秋)109 명년춘(明年春)110에 호세지세(戶稅地稅)111 어이할꼬
 경쇄(肩鎖)112같은 빈집안에 백계무책(百計無策)113 할수없다
 한탄(恨歎)114한들 어이하며 후회(後悔)한들 어이할꼬
 이러한 음학류(淫虐類)115를 뉘아니 천(賤)케알리
 우락(憂樂)116으로 사는인생(人生) 농사밖에 또있는가
 농사를 할지라도 나태(懶怠)말고 근력(勤力)하오
 백곡양양(百穀穰穰)117 풍년(豐年)맞네 절용절식(節用節食)118 검소(儉素)119하오
 흉년(凶年)을 당하거든 저축(貯蓄)120으로 근심121마오
 빈부(貧富)122없는 대동세(大同世)123를 제때에 봉공(奉公)124하오
 제삿날을 당하거든 자생자결(自生自決)125 재계(齋戒)126하오
 접빈객(接賓客)127을 할지라도 친소(親疎)128없이 후대(厚待)129하오

수신제가(修身齊家)130 하는도리(道理) 이에서 더클소나
부녀(婦女)131의 짓는농사(農事) 방적(紡績)132으로 근로(勤勞)하여
잠월조상(蠶月條桑)133 당하거든 오묘상을 따여내야
삼분구소 고운 시절 섬섬옥수134 자사내고
재현재황 찬찬의복135 벽등하에 지어내다
일지일 이지일의 줄세근심136 심시하오
오호라 동도137들아 불가불138한 상서139로다
육십여년 책상 앞에 세상재미 별로 없어
권농가 한곡조에 이내 심사 감흥하다

[각주]

- 1) 동도(同徒) :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또는 집단.
- 2) 천생만민(天生萬民) : 하늘이 낸 만백성.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일컬음.
- 3) 유물유측(有物有則) :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는 뜻으로 『시경(詩經)』 <대아(大雅)> 증민편(蒸民篇) ‘천생증민(天生蒸民) 유물유측(有物有則)’에서 유래한 것이다.
- 4) 준준한 : 어리석고 미련한.
- 5) 이식위천(以食爲天) : 먹는 것으로써 하늘을 삼음. 곧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임을 강조한 말.
- 6) 사체(事體) : 사리(事理)와 체면(體面)을 아울러 이르는 말.
- 7) 근로(勤勞) : 부지런히 일함.
- 8) 백년고락(百年苦樂) : 한평생 괴로움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9) 성세(盛世) : 국운이 번창하고 태평한 시대.
- 10) 기식갈음(機食渴飾) : 굶주리고 목마름. 『채근담(菜根譚)』에서 “천성이 맑으면 배고프고 목마른 생활이라도 모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지 못할 것이 없고, 마음이 물욕에 빠져 혼미해지면 비록 선(禪)을 말하고 계(偈)를 풀이할지라도 모두 정신을 희롱하는 것일 뿐이다. 性天澄徹 則饑食渴飲 無非康濟身心, 心地沈迷 縱談禪演偈 總是播弄精魂”이라 하여 천성이 맑으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했다.
- 11) 최급(最急) : 가장 급하거나 빠름.
- 12) 혼돈(混沌) :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
- 13) 조판(肇判) : 처음 쪼개어 갈라짐.
- 14) 식목실(食木實) :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뜻으로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성인인 유소씨(有巢氏)가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사는 것을 보고 사람에게 집짓는 법과 나무열매를 따먹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 15) 수인씨(燧人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황제로 불을 쓰는 법과 음식물의 조리법을 전하였다고 한다.
- 16) 교인화식(教人火食) : 사람에게 불로 음식을 조리하는 법을 가르침.
- 17) 서제(西帝) : 복희(伏羲)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전설상의 인물.
- 18) 복희씨(伏羲氏) : 중국 고대 전설상의 황제로 팔괘를 처음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고기잡이를 가르쳤다고 한다.
- 19) 뇌사(耒耜) : 쟁기의 일종으로 호미같이 생겼다고 한다.
- 20) 신농씨(神農氏) : 중국의 옛 전설 속의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임. 농업·의료·악사(樂師)·주조(鑄造)·양조(釀造)·역(易)·상업의 신이라고도 한다.
- 21) 교민가색(教民稼穡) :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친다는 뜻으로 『맹자(孟子)』 <등문공장구상(滕文公章句上)>에 “후직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오곡을 심고 가꾸게 하였는데, 오곡이 영글어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다. 后稷教民稼穡 樹藝五穀 五穀熟而人民育”라 한데서 나온다.
- 22) 함포고복(含哺鼓腹) :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말.
- 23) 당요민(唐堯民) : 요임금 때의 백성을 뜻하며, 요임금을 당요(唐堯)라 부른다.
- 24) 격양가(擊壤歌)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로 중국의 요임금 때에, 태평한 생활을 즐거워하며 불렀다고 한다.
- 25) 화답(和答) : 시(詩)나 노래에 응하여 대답함.

- 26) 우순씨(虞舜氏) : 순임금을 가리킨다.
- 27) 남풍시(南風詩) : 중국 상고시대 순(舜)임금이 남훈전(南薰殿)에서 오현금을 타며 백성의 편안함과 풍부한 살림을 읊은 시를 말한다.
- 28) 구주(九疇治績) : 구주는 홍범구주(洪範九疇)를 가리키는 말로 『서경(書經)』에서 우(禹)임금이 정한 정치 도덕의 아홉 원칙을 말한다.
- 29) 치적(治績) : 잘 다스린 정치상의 업적을 말한다.
- 30) 하우씨(夏禹氏) : 중국 하(夏)나라 때 우임금을 말한다.
- 31) 전복(甸服) :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말한다.
- 32) 후복(侯服) : 제후가 직접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말한다.
- 33) 은성탕(殷成湯) : 은나라 성탕(成湯)왕을 말한다.
- 34) 조빌 : 악기인 생황(生簧)을 말한다.
- 35) 주문왕(周文王) : 주나라 문왕을 말한다.
- 36) 무일편(無逸篇) : 『서경(書經)』 무일편을 말한다.
- 37) 빈풍시(豳風詩) : 『시경(詩經)』의 한 제목을 말한다.
- 38) 정전법(井田法) : 주나라 때 처음 실시한 토지제도를 말한다.
- 39) 말가시고 : 펼치시고.
- 40) 농용팔정(農用八政) : 농사를 다스리는 데 8가지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주서(周書)』 홍범편(洪範篇)에 나온다.
- 41) 한문제(漢文帝) : 한나라 황제 문제를 가리킨다.
- 42) 만고대성(萬古大聖) :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큰 성인.
- 43) 노중니(魯仲尼) : 노나라의 공자를 뜻으로 중니는 공자의 이름이다.
- 44) 권왕행도(權王行道) : 임금이 행야할 도리.
- 45) 맹부자(孟夫子) : 맹자(孟子)를 가리킨다.
- 46) 불위농시(不違農時) : 농사지를 때를 어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적절한 시기에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일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 47) 궁경남양(躬耕南陽) : 제갈량이 출사하기 전에 남양에서 몸소 밭을 갈았다는 뜻으로 『출사표(出師表)』에서 나온다.
- 48) 제갈선생(諸葛先生) :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신하인 제갈량(諸葛亮)을 말한다.
- 49) 흥복한실(興復漢室) : 한나라의 왕실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뜻으로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에서 나온다.
- 50) 방덕공(龐德公) : 제갈량의 스승이라 전한다.
- 51) 종두남산(種豆南山) : 도연명(陶淵明)이 살았다고 전하는 곳으로 <귀원전거(歸園田居)>에서 나온다.
- 52) 도연명(陶淵明) : 중국 동진(東晉)시대 때의 시인으로 <귀거래사(歸去來辭)>로 유명하다.
- 53) 당태종(唐太宗) : 당나라 태종 이세민(李世民)을 가리킨다.
- 54) 우국원통(憂國寃痛) : 나라를 걱정하고 원통해 함.
- 55) 주회암(朱晦庵) : 남송(南宋) 시대 때 유학자인 주희(朱熹)를 가리킨다.
- 56) 주경야독(晝耕夜讀) :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함.

- 57) 동소남(董邵南) : 당나라 때 사람으로 한유(韓愈)가 장수로 추천하였다고 함.
- 58) 자고(自古)로 : 자고 이래로. 옛날부터.
- 59) 제(濟)와치덕(治德) : 몸을 가지런히 하는 것과 덕을 쌓음.
- 60) 가색간란(稼穡間糶) : 심고 가꾸는 사이의 어려움.
- 61) 춘경추확(春耕秋穫) :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임.
- 62) 은후(恩厚) : 은혜가 두터움.
- 63) 천도지리(天道之理) : 하늘의 도와 이치.
- 64) 근실(勤實) : 부지런하고 진실하다.
- 65) 귀타한들 : 귀(貴)하다한들
- 66) 야인(野人) : 시골에 사는 사람.
- 67) 의식(儀式) :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 68) 부귀영화(富貴榮華) :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 온갖 영광을 누림.
- 69) 천하대본(天下大本) : 천하에 가장 으뜸인 근본.
- 70) 식토민(息土民) : 식토는 기름진 땅을 말하며, 식토민은 기름진 땅을 가꾸는 백성을 말한다.
- 71) 주이우모(晝爾于茅) : 낮에는 띠풀을 손질하다. 『맹자(孟子)』 <등문공상편(滕文公上篇)>에 나온다.
- 72) 소이색도(宵爾索綯) : 밤에는 새끼를 끈다. 『맹자(孟子)』 <등문공상편(滕文公上篇)>에 나온다.
- 73) 극기승옥(亟其乘屋) : 빨리 지붕을 덮다. 『맹자(孟子)』 <등문공상편(滕文公上篇)>에 나온다.
- 74) 분회(粉灰) : 화학용어로 수산화칼슘을 말한다.
- 75) 시파백곡(時播百穀) : 때에 맞춰 오곡백과의 종자를 뿌린다.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나온다.
- 76) 실시(失時) : 때를 놓치다.
- 77) 기경기계(起耕器械) : 논밭을 가는 연장 등을 통틀어서하는 말.
- 78) 부인가의 아름다면 : 부인이 외모에만 신경쓰면.
- 79) 근자득지(勤者得之) : 부지런한 자가 얻는다는 뜻으로 실재없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다.
- 80) 자구다복(自求多福) : 스스로 그 몸의 복을 구한다는 뜻으로 『시경(詩經)』 ‘길이 하늘의 뜻에 맞도록 함이 스스로 그 몸의 복을 구함이라.永言配命 自求多福’에서 나왔다.
- 81) 다서다두(多黍多豆) : 기장과 콩을 많이 수확하다.
- 82) 경이(驚異) :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다.
- 83) 여지여경(如坻如京) : 언덕처럼 쌓이고 산처럼 쌓였다는 뜻으로 『시경(詩經)』에 나온다.
- 84) 유황상제(有皇上帝) : 거룩하신 상제라는 뜻으로 『시경(詩經)』에 나온다.
- 85) 나태(懶怠) : 행동, 성격 등이 느리고 게으르다.
- 86) 유련황망(流連荒亡) : 이곳저곳을 놀러 다니며 주색에 빠짐. 유련황락(流連荒樂)이라고도 한다.
- 87) 방구리 : 물을 길거나 술을 담는데 쓰는 질그릇.
- 88) 몽당호미 : 닳아져 못쓰게 된 호미.
- 89) 녹수청음(綠水淸陰) : 푸른 물과 시원한 그늘.
- 90) 반석(磐石) : 너럭바위.

- 91) 만사태평(萬事太平) : 모든 일이 잘되어서 탈이 없고 평안함.
- 92) 일락서산(日落西山) : 해가 서산으로 떨어지다.
- 93) 비전박토(非田薄土) : 밭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
- 94) 다목히고 : 논이나 밭을 쓰지 않는 채 그대로 두다.
- 95) 흉험(凶險) : 마음이 흉측하고 바르지 못하다.
- 96) 주취(酒臭) : 술에 취해 풍기는 냄새.
- 97) 취흥(醉興) : 술에 취해 일어나는 기분.
- 98) 도도하여 : 말하는 모양이 거침이 없어.
- 99) 화투(花鬪) : 48장으로 된 놀이 딱지. 계절에 따른 솔, 매화, 벚꽃, 난초, 모란, 국화, 오동 따위 열 두 가지의 그림이 각각 네 장씩 모두 48장이다.
- 100) 활수남자(滑水男子) :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시원스럽게 잘쓰는 남자. 씩씩이가 헤픈 남자.
- 101) 불임소리 : 노래부르는 소리.
- 102) 분벽사창(粉壁紗窓) : 하얗게 꾸민 벽과 비단으로 바른 창이라는 뜻으로, 여자가 거처하며 아름답게 꾸민 방을 가리킨다.
- 103) 주주야야(晝晝夜夜) : 낮과 밤을 강조하는 말로 '밤낮 가리지 않고'라는 뜻이다.
- 104) 희락(喜樂) :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 105) 부모봉양(父母奉養) :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다.
- 106) 처자권속(妻子眷屬) : 부인과 딸린 식구. '권속'은 '아내'의 낮춤말로도 쓰인다.
- 107) 용전여수(用錢如水) : 돈을 물쓰듯이 하다.
- 108) 부운(浮雲) : 뜬구름.
- 109) 금년추(今年秋) : 올 가을.
- 110) 명년춘(明年春) : 내년 봄.
- 111) 호세지세(戶稅地稅) : 호세는 집집마다 내는 세금, 지세는 땅에 물리는 세금.
- 112) 경쇄(肩鎖) : 자물쇠.
- 113) 백계무책(百計無策) : 어려운 일을 당하여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해결하지 못하다.
- 114) 한탄(恨歎) :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하다.
- 115) 음학류(淫虐類) : 음탕하고 잔학한 무리.
- 116) 우락(憂樂) : 근심과 즐거움.
- 117) 백곡양양(百穀穰穰) : 모든 곡식이 많고 넉넉한 모양.
- 118) 절용절식(節用節食) : 아껴쓰고 아껴 먹음. 근검절약(勤儉節約)과 같은 뜻.
- 119) 검소(儉素) : 사치하지 않고 꾸밈없이 수수하다.
- 120) 저축(貯蓄) : 절약하여 모아두다.
- 121) 근심 : 해결못한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다.
- 122) 빈부(貧富) : 가난과 부귀.
- 123) 대동세(大同世) : 온 세상이 번영하여 화평하다.
- 124) 봉공(奉公) :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하다.
- 125) 자생자결(自生自決) : 자기가 살아 나갈 길을 남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다.

- 126) 재계(齋戒) :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不淨)한 일을 멀리하다.
- 127) 접빈객(接賓客) : 손님을 접대하다.接客(接客)과 같은 말.
- 128) 친소(親疎) : 친함과 친하지 아니하다.
- 129) 후대(厚待) : 아주 잘 대접하다.
- 130) 수신제가(修身齊家) :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리다.
- 131) 부녀(婦女) : ‘부녀자’와 같은 말로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하는 말.
- 132) 방적(紡績) :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길쌈’과 같다.
- 133) 잠월조상(蠶月條桑) : 봄날에 뽕잎을 따다. 『시경(詩經)』에 나온다.
- 134) 섬섬옥수(纖纖玉手) :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을 이르는 말.
- 135) 찬찬의복(燦燦衣服) : 번쩍번쩍하고 아름다운 비단 옷.
- 136) 졸세(卒歲)근심 : 선달을 마저 보내고 한 해를 마치는 걱정거리.
- 137) 동도(同道) :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 138) 불가불(不可不) : 부득불(不得不)과 같은 말로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 못해 함.
- 139) 상서(祥瑞) : 복되고 길할 일이 일어날 조짐.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